

印度 宗教文化와 性

류경희*

- I. 머리말
- II. 宗教史에 나타난 性에 대한 두 태도
- III. 印度 宗教文化에서의 性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도 종교문화에서 종교와 성의 관계를 고찰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일반적인 인식은, 인도종교가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서 성을 억제하고 금지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행주의 전통이 체계적이고도 널리 발전해 온 인도에서, 성이 중시되는 에로틱한 전통이 어떤 지역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¹⁾ 실제로, 인도에서 현세적 측면을 지니는 성적 표상이 세속 삶을 초탈하려는 해탈의 이상과 함께 범종교문화적인 특성으로 나타나 왔다. 인도 종교사를 통하여 발전해 온, 성과 관련된 신앙과 의례 그리고 풍부한 종교예술 작품들이 성과 종교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해 주는 한 예이다.

따라서 정신성에 편향된 탈속적 경향이 인도 종교문화의 두드러진 한 주류를 형

* 한국외국어대 강사, 종교학

1) D. Desai, *Erotic Sculpture of India*(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1985), 3쪽. Havelock Ellis도 인도에서 성적 사랑은 세계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성화되고 신성시되어 왔다고 말한다. S. Gopalan, *Hindu Social Philosophy*(New Delhi: Wiley Eastern Limited, 1979), 102쪽, 주 13. 또 조프레이 파린더도 종교와 성의 긴밀한 관계가 인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종교에 나타난 성』(서울: 동심원, 1966), 14쪽.

성해 온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인도문화 전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 세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세 중심적인 경향 역시 인도 종교문화의 또다른 주류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종교사상과 이에 토대를 두는 종교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 종교사상과 문화가 이 두 사상적 경향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인도종교에서 성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인도문화에 나타나는 종교와 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인도 종교문화의 또 다른 측면 즉 현세중심적인 경향을 이해해보려는 한 시도이다.

II. 宗敎史에 나타난 性에 대한 두 태도

종교사를 살펴보면 성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금욕주의 또는 고행주의 전통의 부정적인 태도와 자연주의 전통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이다.²⁾ 윤리적 성격이나 고행주의 경향이 강한 종교전통에서 성과 종교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성을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종교와 성의 관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은 아니다. 성은 신성

2) M. Eliade,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New York: Macmillan, 1987), vol.13, 187쪽 참조 한편 P. Spratt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종교에서의 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심성의 유형에 따라 종교의 유형을 the punitive religion과 the narcissistic religion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이 성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그는 인간 심리 안에는 사랑과 증오의 뿌리로서 서로 상충되는 리비도(생명력, 성적충동)와 공격성이 있는데 어느 것이 지배적이나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그것이 자기도취적 심리와 웅징적 심리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웅징적 심리는 공격성이 강하고 리비도가 약하다. 직접적인 서술, 예술, 화려함 등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순결 콤플렉스가 강하다. 웅징적 종교에서는 (기독교, 이슬람 등) 공격성을 공식 승인하지는 않으나 관심을 기울이고 성을 혐오한다. 자기도취적 심리는 리비도가 강하고 공격성이 약하다. 최고형태의 자기도취자에게서 리비도는 자기발전과 인류애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성행위는 금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순결 콤플렉스는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심리에서 비롯된 자아도취적 종교형태는 성을 공식 승인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공격성은 혐오스럽게 여긴다. 힌두교는 후자에 속한다. 인도종교와 신화에서 풍부한 성 묘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은 삶의 네 목표 중의 하나로 권장된다. 따라서 그는 힌두교의 (철학적, 윤리적) 교리들이 자아도취적 관점의 표현이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자기희생제의, 남성자살, 여성사피, 샤따그라하, 정액에 대한 강력한 리비도적 정신집중 등이 그 예로 제시된다. *Hindu Culture and Personality*(Bombay: Manaktalas, 1966), 19쪽.

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해서 종교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초기 문명의 종교 삶에서 성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도 자연주의 전통이 강한 종교들에서는 성이 여전히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종교사에서 성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두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종교형태들에서 성은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신성한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성의 이러한 신성한 의미와 기능은 또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즉 풍요를 가져다주는 주술력으로서의 성과 보다 초월적인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의 성이다.

원시 및 고대 종교들에서 성행위 자체가 신성성을 지니는 일종의 의례행위로 나타나는 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원시, 고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성과 자연질서를 연관짓는 관념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성은 우주를 형성하는 근본 에너지 또는 창조를 낳는 생명 에너지로 인식되어 성행위 자체가 주술력을 낳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性은 창조, 생산, 그리고 번영과 행복의 추구하고 재앙의 방지 등을 포함하는 풍요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일부 종교에서 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서, 성이 영적 완성이나 절대적 자유의 획득(인도밀교), 그리고 불멸(도교의 방중술) 등을 얻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어 왔다. 인도종교에서는 앞서 언급한 성에 대한 두 태도가 모두 나타나고, 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종교형태들에서 성의 두 가지 의미와 기능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면 다음에서 인도문화에서 성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종교전통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III. 印度 宗教文化에서의 性

고대 우빠니샤드 사상이, 세속 삶의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해탈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한 이래, 이 해탈의 이상은 인도인들의 종교적 이상이자 문화적인 이상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리고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실천윤리(sannyasa)가 지배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해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을 억제하고 금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속적인 이상과 실천이 현세적인 이상과 철학을 완전히 압도하거나 소멸시키지는 못했다. 현세적 이상과 즐거움의 철학 역

시 인도인들의 심성과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고대 이래로, 성은 인도문화, 특히 종교적 삶과 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성은 앞서 언급했던 풍요의 목적과 정신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도구 모두로 사용되어 왔다.³⁾ 따라서 성의 종교적 의미와 그 역할은 인도 고대종교에서부터 현재의 힌두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 종교와 문화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 온 두드러진 성 상징들, 예컨대 성과 관련된 신앙과 의례, 다양한 신화 그리고 풍부한 예술작품 등은 이를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예다. 풍요신앙과 관련 의례들 그리고 밀교신앙과 의례 이외에도 성과 관련된 주제들이 인도의 예술, 문학, 민속 등을 통하여 풍부하게 표현되어 왔다. 특히 9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건축된, 중세 힌두사원의 전면에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는 관능적인 몸짓을 하고 있는 남녀(또는 동물) 쌍(Mituna), 남녀교합상(Maithuna), 집단적인 성행위를 하고있는 像,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 像,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결합하고 있는 像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성묘사들은 인도 종교문화와 성의 밀접한 관계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⁴⁾

1. 性的 宗教的 신성성

1) 풍요숭배와 性的 呪術力

앞서 성이 풍요의 목적을 위하여 주술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듯이, 종교와 성의 밀접한 관계는 풍요의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이 지니는 주술력에 대한 믿음은 특히 원시사회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시 고대인들의 종교적 관심사가 생명력의 보존과 증진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생존동기는 생명에 적대적인 것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것을 증진시키려는 행위양태로 나타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술이 사용되었고 성의 생산력과 창조력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술력을 지니는 것으로 믿어졌다.

3) B. Walker는 힌두교에서의 성을 두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즉 즐거움과 생식을 위한 측면과 성행위를 통하여 힘을 얻는 신비 주술적 측면이다. 첫 번째는 성이 지니는 보편적인 특성으로서의 성적인 욕망이다. 인도에서는 이것이 까마로 표상되며 삶의 진정한 목적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이 측면은 그것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인도의 문학, 조각, 회화 등에서 풍부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인간의 궁극적 이상을 해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이다. *Hindu World*(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68), 390쪽.

4) 이렇듯 생생하고도 실제적인 성묘사가 종교 건축물들에 조각된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은 이 주제를 연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주술은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어떤 신비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고,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 인과법칙에 근거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레이저에 의하면 이러한 주술이 토대를 두는 원리는 유사법칙과 접촉법칙이며, 이 원리에 근거하여 하는 주술이 공감(모방) 주술과 감염주술이다. 성이 원시, 고대 종교의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된 배경적 관념은 이 중 유사법칙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생명을 낳는 성행위가 자연력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주술력을 지닌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성행위가 일종의 모방주술로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 생산, 행복, 번영 등을 증대시키고 재앙, 질병 등의 적대적인 것을 제거하고 방지하려는 풍요의 목적을 위해 성을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주요한 방식들이 발전되었다.

고대 인도종교에서도 풍요숭배와 연관지을 수 있는 성의 주술력에 대한 믿음과 관행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인더스 문명의 유물에서 수많은 남근상, 여근의 상징인 요니상, 곧추선 성기를 가진 남성의 나상(이 상은 후기 힌두교의 주요 신인 쉬바의 원형으로 추정된다.), 또한 풍만한 여성상과 여신상 등이 발견된다. 그러나 후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성행위의 표상은 발견되지 않는다.⁵⁾ 이러한 성과 관련된 유물들의 존재는 당시에 남근숭배나 모신숭배 등의 풍요숭배가 존재했음을 시사해준다.

모신숭배의 풍부한 유물을 근거해 볼 때, 인더스 문명의 사회는 여성성이 크게 중시되고 강조되던 시기로 보인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여성성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었고, 실제로 『리그 베다』에서는 여신은 별다른 중요성을 지니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남근숭배도 비난되었다.⁶⁾ 그러나 이후 베다 문헌에서는 에로티시즘과 성 상징주의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컨대 『백야주루 베다』에서는 베다 사제와 여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질은 묘사가 나오고, 『아타르바베다』에서는 성교가 불(火)의례로 상징화되어 두 불쏘시개를 비비는 것으로 아들 생산을 의미했다. 그리고 『브라흐마나』나 『우빠니샤드』에서도 성교에 의한 우주창조 이야기가 나온다.

종교 의례로서의 이러한 성행위는 종교사에서 실제적 방법과 상징적인 방법 두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음에서 몇 가지 주요 방식들⁷⁾을 인도종교와 연관지어 언급해

5) Desai는 인도에서 성교나 집단성교(오르지)의 묘사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밀교가 정점에 달하기 이전 시대이므로 그러한 묘사가 중세 밀교에서부터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Desai, 위의 책, 10-14쪽.

6) B. Walker, 위의 책, 390쪽.

보기로 한다.

첫 번째 형태는 제의적인 성교이다. 이는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자연의 풍요과정 사이에 있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성을 자연질서의 풍요와 관련지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이집트 그리고 회랍의 창조신화에서 나타나 는, 원초적 존재의 성교나 자위행위로 인한 우주창조 이야기, 여성과 밧고랑, 남성과 쟁기, 성교와 쟁기질을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농경축제에서의 성적인 방종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신들의 신성한 결혼 역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 이는 여신과 남신이 우주와 자연력의 여성적 원리와 남성적 원리를 상징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바빌론(결혼 전 신으로 여겨지는 낫선 이에게 처녀성을 바치기), 그리스천신 제우스와 옥수수 여신 디메터), 유럽 등지의 계절축제에서 신들의 결혼이 매년 주기적으로 경축되는데, 여기서 신상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신을 대리하는 인물들이 실제적인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인도의 경우 신들의 결혼 주제는 신화와 실제 의례에서도 풍부하게 나타난다. 쉬바와 여신과의 결혼이나 남부 미낙시 사원에서 매일 행해지는 남녀 신상 간의 상징적 성결합 등의 예를 꼽을 수 있다.

셋째는 신들과 여성, 특히 처녀와의 성적인 결합이다. 이러한 성행위를 통하여 신의 영적인 힘이 인간에게 전이된다고 믿었고, 처녀의 경우는 이러한 행위가 다산을 증가시킨다고 믿었다. 인도의 데바다시 제도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순결한 처녀를 신의 종으로 바치는 것으로, 데바다시로 선정된 처녀는 사원에 머물며 종교 의례 등 여러 종교행사에 참여한다. 그러나 후에 데바다시는 사원 매춘부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성관계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과 여성과의 관계로도 나타난다. 고대 로마의 당나귀나 이집트의 염소 등이 그 예이고, 인도의 경우는 말 희생제의에서 여왕이 죽은 숫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와 말의 뒷다리를 얽히게 함으로써 성교를 상징화하고, 이를 통하여 말의 힘이 여왕에게 전이되고 이것은 다시 여왕과 왕과의 결합을 통하여 왕에게 전이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동물과 여성과의 성관계는 중세 힌두사원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성 모티브들 가운데 하나로, 멧돼지, 개, 당나귀 등과 여성의 결합형태로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형태들 이외에도, 남녀의 생식기가 주술력을 지니는 것으로 믿어졌다. 남근숭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도의 경우 링가와 요니가 대표적인 남녀

7) 이에 대해서는 Desai의 위의 책, 89-96쪽과 Eliade의 위의 책을 참조

의 성 상징이다. 특히 요가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기도 한 쉬바는 주로 링가 상으로 널리 숭배되는데, 이 링가는 인도 고대의 풍요숭배와 힌두교의 결합을 보여 주는 종교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설적인 언어와 몸짓 역시 재앙을 피하고 풍요를 촉진시키는 주술력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성의 주술력에 대한 믿음이 보다 구체적인 종교문화적 행사로 나타난 것이 풍요축제이다. 농경사회에서 거행되는 계절축제들은 농사의 풍요와 祈禱攘災를 기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性呪術 의례들을 행했다. 이 기간 중에는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여러 가지 성행위들이 허용되었고 이를 통하여 상당정도의 사회적 긴장이 완화되기도 했다. 인도의 홀리 축제는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성 관련 금기가 해제되고 난장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대 풍요축제의 이러한 종교적 신성성은 비종교적 동기, 즉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들과 융합되면서 세속화되었다. 그 결과 축제의 본래적 의미인 풍요기원의 의미가 상실되고 환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기회로 전이되기도 했다. 사실 성의 주술성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시, 고대, 전통사회에서 널리 발견된다. 다만 인도의 차이점은 그것이 보다 널리, 그리고 풍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印度密敎와 靈的 完成의 도구로서의 性

가. 인도밀교

앞서 언급했듯이 성은 풍요의 목적을 위해 주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외에도 보다 초월적인 종교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밀교와 도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교도들은 최고의 이상인 불멸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수행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수행법 중 하나인 방중술에서는 실제적인 성교를 통하여 체내에 생명력의 본질인 기를 최대로 축적시킴으로써 불로장생을 얻으려 했다. 그런가 하면 인도 밀교에서는 성을 통해 인도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성이 최고의 종교적 가치를 달성하는 도구의 역할을 해왔다.

인도에서 풍요의 주술력을 지니는 것으로 믿어지던 성의 의미는, 밀교의 등장과 더불어 정신적인 완성이나 절대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게 되었다. 사실상 인도에서 성의 종교성과 관련된 모든 흐름들이 밀교라는 거대한 강으로 흘러들어가 갔다.⁸⁾ 그 결과 밀교에서 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성상

정의 뚜렷한 표현이 나타난다.

밀교는 원시주술에 고도로 발전된 종교이상이 결합된 종교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밀교는 인도의 주요 종교들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밀교의 기원을 밝히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인도에서 밀교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힌두교와 불교 등에 도입된 것은 약 5세기경부터라고 할 수 있다. 밀교의 신앙과 관행은 7세기에 이르러 상층계급 사이에 널리 퍼졌고, 힌두교와 불교 모두에서 7-12세기에 걸쳐서 절정기에 이르렀다.⁹⁾

밀교의 두드러진 특성은 현상계의 이원성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려는 정신적 목표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성교 즉 마이투나(Maithuna)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도 종교전통에서 밀교가 지니는 독특성은 해탈이라는 종교적 목표를 고행이나 금욕이 아니라 즐거움(Bhoga)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행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성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밀교는 인간의 감각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보다 숭고한 가치를 위한 도구로 승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밀교에서 성행위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두 근본원리인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결합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남, 여의 성은 절대존재에 있는 이원성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각각 쉬바(Shiva)와 샹티(Shakti)로 표현된다. 남녀의 성적욕구가 우주창조와 연관되고 성적 욕망의 힘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성적 결합을 통하여 원초적인 통합상태로 복귀함으로써 해탈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리처드 페인은 현대의 탈성화된 세계에서 이러한 성적 합일이 그 정신적인 의미를 상실했으나 아시아 밀교에서는 예외적인 존엄성을 획득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성의 합일이 신비의례로 전환되는 밀교에서 성의 신성성이 드러난다고 보고, 이러한 성의 합일이 신성성을 지니게 되는 근거 또는 토대를 그가 동서 종교의 영적 토대로 보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 통합성에 대한 열망에서 찾고 있다. 즉 밀교의 목표를 두 상반된 원리가 분화 이전의 통합 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⁰⁾

8) B. Walker, 위의 책, 391쪽. P. Spratt도 밀교의 종교의례가 고대의 풍요의례에서 유래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유사한 의례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반면에 인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살아 남아서 철학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한다. *Hindu Culture and Personality*(Bombay: Manaktalas, 1966), 20쪽.

9) Desai, 위의 책, 112쪽.

10) Richard Payne, "Circles of Love: In Search of a Spirituality of Sexuality and Marriage" in *Sexual Archetypes. East and West*(New York: Paragon house, 1987) ed., Bina Gupta, 51쪽, 60-61쪽.

나. 궁극적 실재의 통합성과 남녀의 양극적 원리: 쉬바와 상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서로 상반되지만 또한 보완적인 형이상학적 두 원리는 꽤 이른 시기부터 여러 문화에서 종교적, 철학적 전제로 등장해 왔다. 천부신과 지모신의 개념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도의 경우 이 남녀의 양극적 상징주의는 종교, 철학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부 학자는 그 기원을 인더스 문명까지 끌고 가기도 하지만 최소한 『리그 베다』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체계화되고 발전된 표현은 상카에서 나타나고, 가장 뚜렷한 표현은 밀교에서 나타난다.¹¹⁾

힌두 밀교의 형이상학에 의하면 원초적 통합성을 지니는 궁극적 실재는 현상화 과정에서 소극적이며 정적인 측면과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측면으로 나타난다. 이 두 측면이 쉬바와 상띠라는 형이상학적 원리로 표상되는데, 쉬바는 최고신인 남성 신이고 상띠는 쉬바의 창조력으로 여신으로 상징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물질세계에서 남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기능적인 것이며,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주장된다.

밀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현상계의 이원성을 초월하여 비이원적인 합일상태에 도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여타 힌두 철학과들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상의 차이이다. 즉 고행주나 도덕적인 단련 등의 힘겨운 과정 대신에, 남녀의 성적인 결합과 기타 주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목표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즉 성적 결합을 통하여 현상계의 차이들을 용해시키고 소우주와 대우주 간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¹²⁾

일반적으로 여신숭배 형태를 취하는 힌두 밀교는 창조력자 여성원리인 상띠가 보다 강조되어 모든 생성의 유일 원리로서 우위성을 차지하기도 한다. 힌두 밀교에서 성적인 결합은 개인의 몸 속에 있는 남, 여 원리의 결합방식이나 실제 남, 여의 결합형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밀교는 인간의 몸을 우주의 축도 즉 소우주로 간주하여, 궁극적 실재의 양 측면이 몸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꾀달리니로 불리는 상띠(여성적 원리로서 생명에너지)가 인체의 성기 부분에 존재하고 이것이 우주의 중심 산을 상징하는 등뼈를 타고 위치해 있는 여러 짜끄라(일종의 심리력의 집결지)를 뱀 꼬리 모양으로 타고 올라가, 정수리 부분에 있는 사하스라라로 불리는 쉬바(원형적 인간, 자웅일체의 남녀)와 합일함으로써 지극한 희열의 상태(남,

11) B. Gupta, 위의 책, 서문 참조

12) B. Walker, 위의 책, 392쪽.

여 원리의 원초적인 결합 상태의 회복)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요가 수행자는 정신적, 육체적인 수행을 통하여 개인의 몸 안에서 이러한 원초적 통합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R. 페인은 이 상태가 원초적 인간의 특성인 자용동체의 상태로, 이것은 異性的(hetero sexus)도 同性的도 兩性的(homo sexual)도 아니며 성초월적(transsexual) 상태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성적 결합이 지나는 신성한 이상 곧 원초적 통합성에의 열망이 바로 동서종교의 영적인 토대라는 것이다.¹³⁾ 이러한 요가적 수행을 실제적인 성행위를 통하여 하는 것이 바로 밀교의 마이투나이다.

다.마이투나

마이투나는 힌두 밀교에서 여신에게 바치는 5가지 마카라(포도주, 물고기, 쌀, 고기, 그리고 성행위) 가운데 하나인 성행위이다. 실제 성행위의 대응으로 성교자세나 치즈, 꽃 등이 사용된다. 밀교에서 마이투나는 쾌락적 동기가 아닌 의례로 행해지는 신성한 행위이다. 이는 신을 즐겁게 하거나 남녀 원리의 합일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행해진다. 따라서 절제된 조건 아래에서 행해진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마이투나에서 사정이 억제된다는 점이다. 인도에서는 고대 이래로 정액이 생명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따라서 정액의 방출은 그 에너지를 잃게 해서 영적인 능력을 잃게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고행적 수행방법과 밀교적 수행방법이 나타났다. 앞의 방법에서는 성적인 물입이 해탈에 장애가 되며, 역으로 성욕의 억제는 영적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욕을 억제하고 극복하려 한다. 이에 반해 밀교에서는 성행위를 통하여 비이원적인 상태를 경험하되 정액의 방출을 금함으로써 생명 에너지의 상실을 막으려 한다.¹⁵⁾

데사이는 밀교에서 이 마이투나 의례가 강조되는 것은 밀교와 풍요숭배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밀교의 짜끄라 뿌자가 이 풍요의례의 흔적이라는 것이다.¹⁶⁾ 이 의례는 구루의 지도 하에 행해지는 성의례이다. 밀교문헌인

13) B. Gupta, 위의 책, 60-62쪽.

14) 이들 의례는 성원리와 생식기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 집중을 요하는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성교하는 신과 여신에 대한 명상, 노출된 여성성기에 대한 명상, 수행자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 끝에 눈을 고정시키고 까마 신에 대해 명상하는 것 등. B. Walker, 위의 책, 392쪽 참조

15) B. Walker, 위의 책, 390쪽 참조

16) Desai, 위의 책, 118쪽.

『Kaulavalinirnaya』(7. 56)에 의하면 같은 수의 남녀가 신분이나 혈연과는 상관없이 밤에 은밀히 만나 원을 그리며 앉는다. 여기서 여신은 안뜨라로 표상된다. 여성이 옷을 벗어 그릇에 던지면 그 옷을 받은 남성이 성의례의 짝이 된다. 그리고 성의례에 앞서 신을 달래기 위한 긴 의례과정이 선행된다. 현재도 라자스탄이나 히말라야 지역 등에서 이러한 은밀하고 비의적인 의례가 행해진다고 한다. 데사이는 이러한 주술적 요소는 밀교의 핵심적인 요소로, 풍요를 위한 주술의례가 밀교의례에서 시디(siddhi, 목사)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재평가되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밀교의 마이투나는 신을 달래기 위한 목적과 해탈을 얻는 목적 모두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교가 융성했던 중세에 인도는 목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발전시켰고, 성의 주술력에 대한 믿음 역시 재정립시켰다고 분석한다.¹⁷⁾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것을 즐기는 상류사회에 밀교가 전파됨에 따라 주술이 인기를 끌고 성적 묘사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를 초래시켰다. 그 결과 인도문화에 널리 퍼져 있던 감각적인 경향이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다.

3) 힌두 전통에서 까마의 의미

인도 종교사에서 밀교가 융성하고 성의 주술력에 대한 신앙이 재등장한 것은 탈속적 경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여 현세적 경향이 재등장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서력 기원을 전후하여 인도에서는 탈속적 사상과 그에 근거하는 삶의 방식이 야기시키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탈속적인 삶의 가치들과 세속적인 삶의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함으로써 삶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사회를 유지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브라흐만교 사상을 재정립하여 등장한 힌두 사상은 인간이 몸과 마음과 영혼 등 복합적 요소들로 구성된 통합적 존재이므로 그 요소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인간이해에 근거해서 제시된 것이 삶에서 추구해야 할 네 가지 가치 또는 목표이다. 즉 본능적 욕망인 까마, 물질적 부인 아르타, 종교 사회적 의무인 다르마, 최고의 정신적 가치인 목사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앞의 셋은 현세적 가치라 할 수 있고 목사는 초월적 가치이다. 특히 아르타와 까마는 인간의 현세적인 욕망과 관련되는 가치이다. 이 가운데 까마를 삶의 한 목표로 포함시킨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충족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지닌 몸과 마음의 욕구는 너무도 실제적인 것이어서 간단히 간

17) Desai, 위의 책, 143쪽, 145쪽.

과해 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까마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정서적인 삶과 그와 관련한 미적인 충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욕망을 의미하며, 특히 사랑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 고팔란은 까마를 육체적, 정신적 욕망 모두를 포함하는, 즉 모든 종류의 욕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욕망은 행위를 유발시키는 동인이므로 까마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동인력인 동시에 모든 행위의 목표라고 해석한다.¹⁸⁾ 인도문학에서 이 까마는 창조의 우주력 또는 심리 생물학적 힘, 그리고 종족 보존과 즐거움의 원리로 나타난다. 우주력으로서의 까마는 이미 『리그 베다』에서 언급된다(10. 129. 4). “태초에 까마가 그 하나에 나타났다. 그것은 마나스의 최초의 씨앗이다.” 생물학적 힘으로서의 까마는 『바가바드기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생산하는 성적 욕망 곧 까마이다.”(10. 38) “나는 존재들에 있는 성욕이다.”(7. 11)

즐거움의 원리로서의 까마도 힌두 전통에서 중시된다. 힌두 전통은 고행주의 전통의 영향에 대응하여 삶의 네 단계를 거쳐 해탈을 추구하도록 하는 윤리체계를 확립시켰다. 특히 사회와 세상의 유지를 위하여 결혼하여 자손을 낳고 사회적 의무를 행하는 家長期를 매우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이 전제되어야 했다. 즉 결혼제도가 종교적 목적과 쾌락적 목적 모두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까마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많은 신화에서 신들의 사랑 이야기로 나타나고, 까마 자체가 사랑의 신으로 의인화되어 창조와 생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힌두 신화에서 까마는 쉬바의 분노로 재가 되어버린 후 육체가 없어졌으나 모든 창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까마는 모든 존재에 작용하는 자연력이므로 억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적절한 정신으로 키워져야 할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고대부터 이미 사랑학(까마샤스트라)으로 불리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 냈다. 이것의 목적은 사랑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즐거움을 탐구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까마수뜨라』이다. 저자인 바츠야야나는 사랑학의 신성한 기원을 주장한다. 그는 삶의 네 가치를 찬양한 뒤, 창조주 뿌라자빠띠가 인간을 낳고는 삶의 세 목표 즉 다르마, 아르타, 까마 등을 다루도록 말했다고 언급한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들은 첫째 삶의 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과 훈련, 둘째 사랑

18) S. Gopalan, 위의 책, 98-99쪽. 또한 그는 까마가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세 측면을 지니며 이 세 측면 모두를 이해해야 까마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육체·심리적인 측면은 성의 감각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심리-정신적인 측면은 사랑의 심리학과 성 간의 상호 태도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한다. 같은 책, 102쪽.

19) N. K. Devaraja, *Mind and Spirit of India*(Delhi: Motilal Banarsidas, 1967), 83쪽.

및 성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이다. 『까마수뜨라』에서 성의 감각적인 다양한 측면이 정교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은 인도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성의 세속화와 그 배경

1) 문화적 배경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인도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면서 성의 종교 주술적 의미가 약화되고 성의 쾌락적인 측면이 증가되었다. 물론 고대 시기에도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속적인 성의 표상이 존재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성의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는 중세이다. 중세 인도사회는 성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혼외 성관계와 매춘이 허용되었고(다만 동성애와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부정적), 어린 소녀를 신에게 공물로 바치기 위해 신을 대리하는 사제와 성교 의식을 행하게 하는 데바다시 제도가 사원 매춘부 제도로 전락하기도 했다. 일반 대중들 역시 성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어서, 삶의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인 성적인 욕망 즉 까마가 중시되고 사랑과 성의 연구서인 사랑학 문헌들이 많이 등장했다.

중세에 성에 대한 감각주의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바로 건축, 회화, 문학 등에 나타나는 풍부한 성묘사이다. 이는 중세 시기 인도인들의 현세적 삶과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결부지어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인도전통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까마는 삶의 네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추구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성은 금기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지식이 교양 있는 귀족계층 사이에서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64가지 성과 관련한 주요 기술들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은 남녀 사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교양 있는 이들과 부유계층 사이에서 사랑과 성의 주제가 중시되다 보니, 이에 대한 논의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성을 다루는 다양한 문헌들이 쓰여지게 되었다. 바츠야야나의 『까마수뜨라』는 모든 성관련 문헌들의 토대가 되었는데, 중세에 성에 대한 탐구가 보다 깊이 이루어지면서 이 책의 주석서뿐만 아니라 그에 토대를 두는 새로운 책들이 많이 쓰여졌다. 이들 문헌들이 다루는 주제는 남녀의 유형, 성적인 특성, 신체형에 따라 여성을 즐겁게 하는 방법, 결혼 성관계, 혼전 및 혼외 성 등이다. 이 외에 시인과 작가들도 그들 작품에서 성을 자유롭게 표현하

였다.

이와 같이 인도문화가 성을 예술로서 공개적으로 발전시키고 풍부한 성문헌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사회가 성의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쾌락적인 측면 역시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초기 목축과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관련하여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던 성이 이러한 세속화와 감각주의로 흐르게 된 배경은, 상거래의 발달과 그로 인한 도시의 성장으로 당시 사회의 새로운 욕구에 따라 성이 재해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성의 의례적인 기능이 사회 지배계층의 감각적인 취향을 만족시키는 기능으로 대체된 것이다. 데사이는 성의 이러한 종교적 측면과 세속적 측면 간의 상호작용이 인도 예술사에 나타나 있으며, 중세 사원에 조각된 성적 모티브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하고 있다.²⁰⁾ 바네르지 역시 이들 사원 조각이 종교적 동기와 세속적 동기를 지닌다는 데사이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는 또한 밀교가 종교적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카마수뜨라』는 세속적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 이 문헌의 영향이 커진 것은 봉건주의의 등장과 성립으로 보고 있다.²¹⁾

2) 경제사회적 배경

중세 시기 성의 세속화는 중세 인도사회의 봉건제적 경제구조를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약 500년경부터 인도의 사회경제 패턴이 변화하였는데, 학자들은 최소한 굽타시대 이래 봉건제²²⁾의 핵심 조건이 존재했다고 본다. 정치경제 체계가 주로 땅에 토대를 두고 있었고, 지배자가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밑에 사만따 또는 마하라자로 불리는 봉건영주가 있었다. 그리고 왕이 관리들에게 땅을 분배하거나 하사하는 경향이 봉건과정을 심화시켰다. 또한 왕조간의 잦은 전쟁으로 왕조가 급속히 바뀌고 이 과정에서 영주들은 승자 쪽에 충성을 보임으로써 영주의 수와 위치가 높아졌다. 600년 이후에는 이 봉건제가 피라미드 구조로 자리잡아 갔다. 이렇듯 실제 권위가 지역화되어 감에 따라 왕의 권위는 약화되었다.

이러한 정치경제 구조는 뿌르따다르마와 사원건축의 축진을 초래하였다. 중세 힌

20) Desai, 위의 책, 4쪽.

21) S. C. Banerji, *A Brief History Of Tantra Literature*(Calcutta: Naya Prokash, 1988), 143쪽.

22) 데사이는 인도에서 봉건제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지주제나 유사 봉건제가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많은 학자들이 중세 인도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넓은 의미의 봉건제로 지칭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Desai, 위의 책, 146쪽.

두교에서 해탈에 이르는 용이한 방법들이 제도화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원 그리고 그 부속 건축물들을 건축하거나 자선활동 등을 포함하는 뿌르따다르마이다. 따라서 사원건축이나 브라만에게 하는 자선행위(다나)가 인기를 얻었고, 땅이 부와 경제력의 주요 도구가 되면서 땅의 기부(다나)가 최고형태의 자비로 간주되었다. 또 라즈푸트 왕조의 등장은 이 관행을 유행시켰다. 이 라즈푸트 왕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신성시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브라만 계층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다. 또 관리나 봉건영주 등 상류계층이 종교 주술적인 경향을 띠었는데, 이때 수많은 풍요의례들이 힌두교와 밀교 하에서 재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들 왕, 관리, 영주들이 땅을 기부하여 사원을 건립하고 밀교를 후원하였다.

이 시기 이들 상류계층의 삶에 즐거움의 요소가 지배적으로 되면서 세속적 감각주의가 나타났다. 종교 문헌들에는 성을 억제하는 것이 문화적 이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문학에 나타난 귀족들의 행위에는 보가의 요소가 명백히 나타난다. 당시 성은 금지되지 않았고 예술로까지 승화되어 교양 있는 시민과 귀족들 간에는 성에 대한 지식이 권위를 부여하기도 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일부다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은 고급 매춘부들과 관계를 가졌고 궁정 여성들과 봉건영주 부인, 그리고 상인 계층의 부인들도 혼외 정사를 가졌다. 그런가 하면 성기교를 완전히 갖춘 밀교 수행자가 궁정에 머물며 왕과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또한 축제는 대단한 환락과 즐거움의 행사가 되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감각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다. 결국 중세에는 고행주의 이상이 강조되기보다는 즐거움(bhoga)과 용이한 해탈의 방법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제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인도문화에서 성은 성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풍요나 영적 완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문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의 세속적인 의미도 간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까마가 삶의 네 목적 가운데 하나로 권장되었고 많은 신화와 문학, 건축, 회화 등의 예술작품들에서 풍부한 성 묘사가 이루어졌다. 사학자인 로밀라 타파는 인도인들의 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에는 ~~유대~~ 기독교 전통의 원죄 의식에서 야기되는 죄의식 콤플렉스가 현저히 부재한다고 말한다.²³⁾ 세속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는 힌두 전통에서 성은 죄악시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창조적 에너지로 간주되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적절치 못한 경우에 한해 죄악시되었을 뿐이다. 결국 인도문화에서 성은 두 가지 측면, 즉 풍요와 정신적 완성을 추구하는 주술, 종교적인 측면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측면 모두에서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3) Devaki Jain, *Indian Women*(New Delhi: Institute of Social Studies Trust, 1982), 13쪽.